

誠의 現代的 意義

李 恒 寧 *

目 次

- | | |
|----------------|---------------|
| 1. 머리말 | (2) 中庸의 誠觀 |
| 2. 三要諦 | (3) 李栗谷의 誠觀 |
| 3. 誠에 대한 概觀 | 7. 崔水雲의 誠觀 |
| 4. 要覽의 誠觀 | 8. 典經에 나오는 誠觀 |
| 5. 鄭大珍 理事長의 誠觀 | 9. 誠의 現代的 意義 |
| 6. 儒敎의 誠觀 | (1) 虛僞의 追放 |
| (1) 大學의 誠觀 | (2) 天道에의 畏敬 |

1. 머리말

대순진리회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을 종지로 하고 그 종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4강령 3요체의 신조를 가진다. 대순 종지는 대순진리회의 이론적 기초를 말하는 것으로 대순진리회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 인생관,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요 신조는 대순진리회의 실천적 기초를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종지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수도방법론이다. 종지는 수도의 목적이요 신조는 수도의 방법인데 목적이 뚜렷해야 종교를 믿는 보람을 알게 되고 방법이 정당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조인데 이에는 4강령과 3요체가 있다.

신조인 4강령은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인데 강령에 대해서는 이미 소견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3요체에 대해서 소견을 발표할 단계에 이르렀다.

* 홍익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3요체(三要諦)는 성경신(誠敬信)이다. 강령이란 일의 으뜸이 되는 큰 줄기요 요체는 특히 중요하다는 뜻이다. 4강령인 안심 안신 경천 수도가 신조의 큰줄기인데 그 큰줄기를 이룩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성경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신 3요체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4강령이 이루어지고 4강령이 제대로 실천되어야 종지를 체득할 수 있다.

대순 종지는 음양이 하나가 되고 신인이 하나가 되어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경지이다. 그러한 하나의 세계에는 서로가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사랑하는 세계이다. 서로가 미워한다든지 서로가 한을 품는 그런 상태와는 거리가 멀고 오직 서로가 은혜를 느끼고 서로가 다같이 살기를 바라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는 원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고 그 세계에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진리 즉 도(道)만이 존재하는 낙원이다. 그것이 도통진경의 세계이다.

대순진리회는 도통하여 진경에 이르는 것이 목적인데 그 진경에서는 음양·신인이 하나가 되고 원한이나 상극은 없으며 오직 서로가 사랑하는 상생만이 존재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실현하고자 노력해온 이상세계요 낙원이요 선경이요 극락이요 천국이다. 그 이상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신조로 4강령과 3요체가 있는데 4강령은 도통하여 인간과 천지가 하나가 되기 위한 수도 방법이요 3요체는 인간과 천지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들어가는 몸과 마음의 자세이다. 그러므로 성경신이 없이는 4강령을 이룰 수가 없고 4강령을 이루지 못하면 종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 성경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삼요체

삼요체는 수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마음가짐이다.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에서 낸 대순사상의 교의체계(敎義體系)에 의하면 성은 마음(心)에 있어서의 진리를 경은 몸(身)에 있어서의 진리를 신은 일(事)에 있어서의 진리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성경신이 모두 진리를 가리키

는데 특히 마음의 진리를 성이라 하고 몸의 진리를 경이라하고 일의 진리를 신이라고 하였다. 몸과 마음과 일이 합쳐서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므로 성경신은 인간존재의 근본인 진리가 마음과 몸과 일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음이란 사람의 가슴 깊이 숨어서 좀처럼 남이 알 수 없는 비밀적 존재다.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좀처럼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속 즉 마음이다. 그 마음은 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성인 같은 인자심을 품고 있는지 악마와 같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겉으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자기자신만은 자기가 마음먹고 있는 것이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알 수 있다. 사람의 원래 성품은 본래 선량하여서 사랑이 넘치지만 욕심이 생겨서 그 마음이 흐려진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본래 상태 즉 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 마음은 저절로 착하다. 그것은 진리의 바탕이요 바로 정성이다. 그러나 그 진리의 바탕을 버리고 욕심으로 그 진리의 바탕을 가리우게 되면 마음의 진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본바탕이요 양심이요 진리이다. 정성이 없는 것은 본래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목적에서 「무자기(無自欺)」라고 하여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을 정신개벽(精神開闢)이라고 하여 그 첫 번째로 듣것도 마음의 진실을 중요시한 것이며 대순진리회의 훈회(訓誨)의 제일 첫째로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한 것도 마음의 진실을 중요시 한 것이다.

정성은 마음의 진실로서 마음 속 깊이 숨어있어 사람들은 알 수 없으나 다만 하늘이나 신명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용에서 정성스러운 것은 하늘의 길이라 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그 마음을 바깥의 몸으로 드러내게 마련인데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그 본래의 마음가짐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람을 대하기를 불손하고 무례한 것은 마음 속에 정성이 없다는 표시이다. 마음 속에 정성이 들어 있으면 몸에 나타나는 그의 행동이 저절로 공경스럽게 된다. 즉 마음 속의 정성은 곧 몸의 공경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성이 마음의 진리라면 공경은 몸의 진리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

나라 일을 하면서 산다. 마음은 혼자 있을 때에도 존재하지만 몸은 남과의 사귀에서 필요하다. 사귀는 단둘의 적은 사람과의 사귀도 있으나 사람들은 대개 많은 사람과의 사귀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사회활동이다. 마음속의 진리가 정성(精誠)이면 몸 즉 다른사람과의 만남의 진리는 공경(恭敬)이며 여러사람의 만남 즉 사회생활에서의 진리는 신의(信義)가 된다.

혼자 있을 때 자기마음을 바로 갖지 못하면 마음의 진실을 잃는다. 마음의 진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연의 진리이다. 그 본연의 자리는 여럿이 있을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대학(大學)이나 중용(中庸) 같은 유교(儒敎)의 경전에서도 정성을 중요시 하면서 특히 「홀로 삼가다(慎獨)」고 하였는데 홀로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 삼가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욕심을 내어 본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홀로 있을때가 마음의 본 자세이므로 홀로 있을 때 진실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무자기(無自欺)요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정성이 몸으로 나타나면 공경이 되고 사회의 일처리에 나타나면 신의가 되는데 그런 까닭에 성경신은 진리의 일관(一貫)상태다. 성경신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마음과 몸과 사회가 하나가 되어 진리의 세계를 이룰 수가 없다.

성경신을 3요체라고 하였는데 자고로 셋이라는 수는 완성수(完成數)로 생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족철학인 천부경(天符經)에도 「하나는 처음인데 처음이 없는 것도 하나이며 셋으로 쪼개져도 근본을 다함이 없다. 하늘의 첫 번은 하나이요 땅의 첫 번은 둘이요 사람의 첫 번은 셋이며 하나가 쌓여서 열의 크기가 되어도 어김없이 셋으로 화한다. 하늘의 둘째는 셋이요 땅의 둘째도 셋이요 사람의 둘째도 셋이다。」(一始無始一 析三極無盡本 天一一地一二 人一三 一積十鉅 無匱化三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라고 하여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무궁의 천지가 하나로 시작되어 하나로 끝나는 가운데 둘을 거쳐 셋에 이르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역경(易經)에도 천지인(天地人)을 삼재(三才)라고 하였고 노자 도덕경(老子 道德經)에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았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라고 하여 3을 중요시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불법승(佛法僧)을 삼보(三寶)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聖父 聖子 聖神)을 삼위일체(三位一體)라 하고 또 신망애(信望愛)의 셋을 특히 중시한다.

셋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인류 모두가 중요시하지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은 우리 한국민족이다. 한국민족의 철학을 나타낸 천부경이 셋을 강조한 것은 두말할 것 없으나 역사에 있어서도 상고(上古)가 환인(桓因)시대 환웅(桓雄)시대 단군(檀君)시대의 세시대로 이루어졌으며 오랫동안 신라 고구려 백제의 3국 시대를 이루었다. 일제때 국권을 약탈당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날이 3월 1일이요 그 독립운동의 민족지도자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3교에서 나왔다.

지금 우리가 태극기를 국기로 쓰고 있는데 그 태극은 음양양극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극으로 된 태극보다는 3극(즉 하늘의 붉은색 땅의 파란색 사람의 노란색)으로 된 3태극을 좋아한다. 우리나라 집의 대문이나 부채에 그리는 태극은 대개 3태극인데 이는 우리 민족이 3수를 대단히 중히 여기는 증조이다.

대순진리회에서도 성경신은 3요체로하여 중요한 신조로 삼고 있는데 정성이 지극하고 공경이 지극하고 신의가 지극하여야만 안심 안신과 경천 수도를 이룰 수가 있고 경천 수도의 신조가 지극하여야만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즉 천지가 하나가 되는 참된 낙원인 선경을 이룰 수 있다.

3. 성(誠)에 대한 개관

성은 우리말로는 정성이라 하고 한자(漢字)로는 정성 성(誠)자다. 정성 성자는 말씀 언(言)자와 이를 성(成)자가 합쳐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행일치(言行一致)를 의미한다.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진실(眞實)이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거짓(虛僞)이다. 정성 성자는 자연 그대로의 진실을 의미하고 자연 그대로의 진실을 사람이 말로서 그릇되게 하는 것이 허위이다.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연 그대로의 정성 성자에 대하여 자연 그대로를 그냥 두지 않고 사람이 말로 억지로 꾸

며대는 것은 거짓 위(僞)자다. 거짓 위자는 사람이 만든다는 뜻으로 자연 그대로라는 정성 성(誠)자와는 대립된다. 그러므로 한자로서의 정성 성자는 진실(眞實)과 신의(信義)를 의미한다. 중용에 「성이란 것은 하늘의 길이요 성으로 가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라고 하였는데 하늘의 길로서의 성은 자연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의 길로서의 성으로 가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도로서의 성은 정성(精誠)이라하고 인도로서의 성은 성실(誠實)이라고도 하는데 하늘과 사람이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정성이 곧 성실이 되고 성실이 곧 정성이 된다. 즉 성실하면 자연 정성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말에 정성이란 말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말하는데 정성이란 말과 성실이란 말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말사전을 찾아보면 정성은 성실된 마음이다 하였고 성실은 정성된 마음이다 하였다.

또 성심(誠心)이나 성의(誠意)란 말도 있는데 성심이란 정성스러운 마음이요 성의란 정성스러운 뜻인데 정성이나 성실이나 성심이나 성의나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4. 요람의 성관

대순진리회 요람에서 성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에서 심령을 통일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할지니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이용하나니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이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이 있는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이란 늘 끊임없이 조밀(稠密)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룸이다 하였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통일이다. 일신을 주관하는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통일된 자리가 정성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도(道)의 경지에서 통일되어 잡념이 없이 순수하고 틈과 험이 없이 지속되는 것이 정성이다. 마음이 산란하고 여러 가지 잡념이 걸리지 않고 늘 흔들리면 그것은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신조로서의 성은 오직 종지 즉 도통진경을 위하여 그것만을 생각하고 자기와 도가 하나가 되는 것만을 지극하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없이 계속하는 것이 정성이라는 뜻이다.

마음을 통일시키는 것이 정성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요람의 의미이다. 마음이란 무엇이나 하고 고금동서의 성현들이 꾸준하게 생각하여 왔지만 아직도 그 마음의 본체를 알기가 쉽지 않다. 요람에서는 마음이란 일신을 주관하고 전체를 통솔이용(統率理用)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일신을 주관하고 전체를 통솔하는 그 마음은 본래가 정성스러운 것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잡념을 버리면 저절로 마음의 본체인 천성(天性)과 천명(天命)과 천도(天道)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음의 본체에 따르는 것이 곧 정성이다. 마음의 본심이 흐려진 것을 깨끗하게 닦으면 저절로 마음의 본성인 정성의 경지로 돌아간다는 것이 요람에서 말하는 정성이다.

5. 정대진 이사장의 성관

정대진 이사장은 대순사상논총 제1집(1996) 「대순사상 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성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성의 사전적 개념은 「진실로」 「참으로」의 뜻을 지니는 추상적 가치를 가르친다. 이때 추상적 가치라 함은 실재 사물의 구체적인 현상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자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주관적인 인식이 개입되어 있다. 그리하여 주관이 느끼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내면의 마음에서부터 거짓됨이 없이 행동하여 나올 때 이를 두고 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내면의 「참됨」을 지녀왔으며 이를 자각하고 어떤 사사로움이 없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할 때 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하고 있다. 정대진 이사장은 유교 경전인 중용(中庸)에서 성을 천도(天道)에 비유하고 사람은 이러한 천도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적 존재로 묘사한 것과, 대학(大學)에 「이른바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니」라고 한 것과, 이율곡(李栗谷)이 「성이란 하늘의

진실된 이치이며 마음의 본체이다」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성이란 무엇보다도 가식되지 않은 본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6. 유교의 성관

앞의 정대진 이사장의 성의 풀이에서도 유교 경전인 증용과 대학이 인용되고 또 우리나라의 이율곡의 사상도 소개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유교에서 정성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유교의 성에 대한 생각을 좀더 더듬어 볼까 한다.

(1) 대학(大學)에서의 성

대학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힘에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또는 친하게 하는데) 있고 가장 착함에 머무는데 있다. 머무는 것을 안 뒤에 안정됨이 있고 안정된 후에야 능히 고요하며 고요한 뒤에 능히 평안하고 평안한 뒤에 능히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 능히 얻음이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親)民 在止於至善 知止而后 有定 定而后 能靜 靜而后 能安 安而后 能慮 慮而后 能得)

물건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처음이 있으니 선후하는 바를 알면 곧 도에 가까우니라(物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아는 것을 이르고 아는 것을 이루려면 물건에 이르는데 있다.(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 在格物)

물건에 이른 뒤에야 지극한 것을 알고 지극한 것을 안 뒤에야 뜻이 정성스럽고 뜻이 정성스러운 뒤에야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른 뒤에야 몸을 닦을 수 있고 몸을 닦은 뒤에야 집을 가지런히 할 수 있고 집을 가지런히 한 뒤에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린 뒤에야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 있다.(物格而后 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 心正 心正而后身修 身修而后 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 天下平)

대학이란 대인(大人)의 학문이란 뜻이니 큰일을 하는 사람이 배우는 글이란 뜻으로 보통사람이 보통생활을 할 때에 배우는 소학(小學)과 대치된다. 소학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을 하는 규범을 말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한다던지 집안 청소하는 따위의 일상생활의 규범을 말하고 있는데 대학은 천하 만민을 상대로 큰일을 하는 사람의 행동규범을 말하고 있다.

대학의 첫머리에 대학의 길이란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고 그리 하려면 먼저 물건에 이르는 즉 격물(格物)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천하는 지극히 크고 넓은 것인데 그 크고 넓은 천하에 밝은 덕 즉 명덕을 밝히고자 하려면 먼저 지극히 작은 것인 물건에 이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물건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끝까지 연구하고 파고들어 그 물건의 이치를 알아내는 것이니 말하자면 사물의 관찰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사물의 관찰을 철저히 하면 알음(知)에 이르는데 이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다. 아는 것이 지극하면 뜻이 정성스러워지고 뜻이 정성스러우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몸을 닦을 수 있고 몸을 닦으면 집안을 가지런히 할 수 있고 집안을 가지런히 할 수 있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만 천하를 태평케 할 수 있다. 천하를 태평케하는 것은 천하에 명덕을 밝히는 것이다.

격물이라는 것이 기본이고 그 뒤에 치지(致知)와 성의(誠意)와 정심(正心)과 수신(修身)과 제가(齊家)와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의하면 격물이 근본이요 성의는 중간단계요, 평천하는 최후 단계이다.

격물의 격(格)자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많다. 주자(朱子)는 격자를 이른다(至·到着)고 해석하고 사물을 철저히 분석 연구하여 그 사물의 본체를

밝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말하자면 오늘의 과학적 분석(科學的分析) 사상이다.

이에 대하여 왕양명(王陽明)은 격자를 바로 잡는다(正·坐定)고 해석하고 사물을 있을만한 자리에 앉힌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말하자면 오늘의 철학적 평가(哲學的 評價) 사상이다. 주자가 격물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사물의 철저한 관찰을 요구하는데 대해 왕양명은 격물에 주관적 직관을 가미하여 사물과 내가 일체가되어 물아일체(物我一體) 더 나아가서는 만물일체(萬物一體)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

좌우간 격물이 되어야 성의를 이루고 성의가 바탕으로 정심이 되고 수신이 되고 제가와 치국 평천하를 이루게 된다. 대학에서는 성의(誠意)가 격물과 평천하를 이어주는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그 성의란 무엇인가.

대학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른바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고 좋은 빛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이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간다.(所謂誠其意者 無自欺也 知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慎其獨也)

소인은 한가이 있으면 착하지 않은 것을 해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고 군자를 본 뒤에 싫어하면서 그 착하지 않은 것을 가리고 그 착한 것을 나타내니 사람이 자기를 보기를 그 폐와 간을 보는 것과 같으니 그런 즉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것을 가운데에 정성이 있으면 밖으로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간다.(小人閑居爲不善 無所不至 見君子而后厭然 揜(가릴 엄)其不善而著其善 人之視己 如見其肺肝 然則何益矣 此謂誠於中 形於外 故君子 必慎獨也)

증자(曾子)가 말씀하기를 열눈이 보는 바 열손이 손가락질 하는바 그 엄함이며(曾子曰 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라고 하였다.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하니 마음이 너그럽고 몸이 편하니 그런 고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富潤屋 德潤身心 廣體胖 故君子 必誠其意)

대학에서는 정성이라는 것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려면 반드시 혼자 있어도 삼가야만 하고 그러한 정성은 사물의 진리를 철저히 캐는 격물(格物)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2) 중용의 성관

중용에는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깊이요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깊이요, 정성이라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고 조용하게 길에 맞으니 곧 성인이다.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착한 것을 택하여 고집하는 사람이다.(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스스로 정성된 것을 성품이라 하고 스스로 정성을 밝히는 것은 가르침이라 하는데 정성스러우면 밝고 밝으면 정성스럽다.(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정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지키는 것인데 인간의 본성은 본래가 밝은 것이다. 하늘에 태양이 밝아서 온천하를 밝게 비추듯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양심이라는 태양이 떠서 사람의 마음과 몸과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고 있다. 이 양심이 바로 정성이다.

정성은 진리 그 자체요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노력이다. 그러므로 정성은 스스로 밝으니 이것은 천도의 자연으로 곧 인간의 본성(性)이다. 그러나 성인에 이른 사람은 그 본성을 간직하고 있지만 범인은 그 본성이 가리워져서 밝지 못하다. 그 밝지 못한 본성을 드러내어 밝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다. 정성 그것이 천도의 자연이라면 정성을 드러내는 교육은 인도의 교육이다.

중용의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늘이 명하는 것을 성품이라 하고 성품에 쫓는 것을 길(道)이라 하고 길(도)을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 길(도)이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길(도)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그 보이지 않는 바를 경계하고 삼가고 그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 하나니 숨긴 것처럼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작은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그런 까닭에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가느니라(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중용 첫머리에 나오는 천명사상 솔선사상 수도사상은 동양인의 성선(性善)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착한 성품이 바로 정성이요 천도다. 그 착한 성품을 따르는 것은 곧 하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니 사람이 정성스러웁다는 것은 곧 하늘의 길이나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3) 이율곡의 성관

퇴계 이황(退溪 李滉)은 경(敬)을 진리의 인식과 실현의 요체로 보고 그 수양론은 경으로 집약된다. 이퇴계는 학문의 궁극목적은 인(仁)을 구하는데 두었는데 그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거경궁리(居敬窮理)를 말한다. 그는 답김이정(答金而精)에서 「다만 공경으로써 안을 곧게 하는 것을 일용의 제일 중요한 일로 삼는다」(只將敬以直內 爲日用第一義)라 하고 또 답김돈서(答金惇叙)에서 「격물도 진실로 쉽지 않지만 공경을 가지는 것이 어찌 쉬우리오 대개 공경이란 철두철미한 것이므로 능히 공경을 가지는 방법을 알면 이치가 밝혀지고 마음이 정해진다(格物固不易 然持敬 亦豈易乎 蓋敬者 徹頭徹尾 苟能知持之方 則理明而心定)

퇴계의 경 중심사상에 대해 율곡 이이(李珣)는 성을 중시하여 퇴계의 주경(主敬)사상에 대해 율곡은 주성(主誠)사상을 이룬다.

율곡은 중용의 성(誠)은 천도이고 성지(誠之)는 인도이다에 바탕을 두고 천도인 성(誠)을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는 것(眞實無妄)으로 인도인 성지(誠之)를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경은 공을 쓰는 요령이요 성은 공을 거두는 땅이니 경으로 말미암아 성을 이룬다.(敬是用功之要 誠是收功之地 由敬而至於誠矣 一聖學輯要三)고 하였다. 퇴계는 선주경 후격물(先主敬 後格物)의 방법을 주장하나 율곡은 선주성 후이명(先主誠 後理明)을 주장한다. 그는 경은 공부의 요령이요 성은 공부의 효과로 보아 성은 천도로서 중용에 이른바 불사이득 불면이중(不思而得 不勉而中)의 성

경(聖境)이므로 중용의 이른바 명즉성(明則誠)의 방향이다. 그는 불사이득은 지의 주치요 불면이중은 행의 극치가 된다.(不思而得 爲知之極 不勉而中 爲行之極 一蒼 成浩原)고 하여 성을 최고로 생각하였다.

이와같이 율곡은 성을 최고의 윤리규범으로 본 것이다.

7. 최수운의 성관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는 오랜 수련 끝에 많은 포교를 하고 또 많은 저술도 하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성경신을 대단히 중요시 한 것을 볼 수 있다.

수운의 좌잡(座箴)에서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성경신 석자니라(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포덕문(布德文)에서 수운이 상제로부터 영부(靈符)를 받아 그려 먹은 즉 몸이 윤택해지고 병이 낫는지라 바야흐로 선약인줄 알았노라. 이에 이르러 병난 사람에게 써보니 혹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므로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니 「정성」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 지극히 천주를 위한 사람은 병이 낫고 도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으니 이것은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이 아니겠는가(受其符 書以香服則潤身差病 方知仙藥矣 到此用病則 或有差不差 故莫知其端 察其所然則 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每有中 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之 誠敬耶)

수운이 수도를 하다가 상제와 만나 문답을 하였는데 이것은 수운의 정성이 지극하여 상제와 통하게 된 것이다.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사람이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제와 통해서 상제와 하나가 되는 지경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8. 전경(典經)에 나오는 성관

증산은 현무경(玄武經)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 다음에 천지성경신(天地 誠敬信)이라고 써서 성경신을 강조하였다.

전경 공사 2장 19절에 성경신이란 말이 나온다. 「경석은 성경신이 지극하여 달리 써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 하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증산께서 차경석을 처음 만난 것은 정미(丁未)년(1907) 5월이다.(전경 행록 3장 37절)

차경석의 부친인 차치구(車致九)는 동학혁명으로 참형을 당했고 차경석도 동학을 신봉하다가 증산을 만나게 되었는데 주막에 잠시 들렀다가 증산을 뵈옵고 반하여 증산의 박대에도 불구하고 따르기를 간청한 사람이다.

차경석은 증산을 극진히 모시었지만 본래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전경에는 계속해서 「본래 동학은 보국안민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천명이다.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두목을 정하려는 증인데 경석이 십이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 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의 해원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글을 써서 외인의 출입을 금하고 「훗날에 보라. 금전 소비가 많아질 것이며 사람도 갑오년보다 많아지리라. 풀어주어야 후천에 아무 거리낌이 없느니라 고 말씀을 맺으셨도다」 라고 되어있다.

이로보면 차경석이 성경신이 극진하였지만 왕후장상이 되겠다는 야욕이 있어서 증산께서는 그를 경계하셨는데 만약에 차경석의 성경신이 끝까지 지속되었다면 그가 도통진경할 수 있었을 것인데 세속적 야망바람에 중도에 성경신을 버리어서 결국은 증산을 배신하였다. 그러나 증산께서는 그의 미래를 경계하면서도 그의 당장의 성경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그로 하여금 동학신명들의 해원하는 일을 하게 했다.

정성은 끊이지 않고 늘 계속되어야 한다. 한시라도 그치는 일이 있으면

이미 정성은 사라진 것이다. 혼자 있을 때나 남이 볼때나 쓸때나 일할 때를 막론하고 고집스럽게 정성을 지속해야만 비로소 천도에 이를 수가 있다. 차경석은 처음에 정성이 지극하여 증산께서 해원공사에 쓰셨는데 그의 야심이 생겨 그로 인하여 정성이 흐려져서 나중에는 배반까지 하게 되었다.

또 성(誠)이란 말은 정성(精誠) 성심(誠心) 성의(誠意)등으로도 표현된다. 전경 행록 1장 29절에 「정성을 드린다」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친다」는 말이 있는데 정성을 드릴려면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을 찢어 신명에게 바치어야 하는데 정성이 부족하고 성심이 풀리면 신명들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전경 교법 3장 17절과 전경 예시 83절에 「성의」라는 말이 나오고 공사 3장 17절에는 「성심 성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정성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여겨진다.

9. 성의 현대적 의의

(1) 허위의 추방

현대는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모든 것이 편해지게 되어서 인간의 수고나 노력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사물의 본질을 심도있게 탐구하기 보다는 그저 기계의 조작만 능하면 만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인간성의 본질을 깊이 탐색하고 사물의 진수를 끝까지 찾아내는 노력이 적어졌다. 이로 인하여 인간성의 반성이 부족하게 되어 인간성 그 자체의 성찰이 모자라게 되어 인간은 그저 기계를 작동시키는 존재이거나 또는 기계에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려 그 결과로 인간성의 황폐를 가져오게 되었다. 인간성의 본성인 참된 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저 겉도는데에 그치어 인간성이 약화되거나 인간성이 훼손되어 참인간의 모습이 왜곡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하여 인간성의 진실성이나 성실성을 크게 문제하지 않고 그저 실용적 공리적으로 사물을 해결하고자 목적만 달성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이 만연하여있다. 무슨 일을 성실하게 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고 부정한 수단을 쓰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는 양심마비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간은 성실성보다 공리성을 더 평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심지어 반인륜적 행동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사회는 성실하여 성과를 못내는 것보다 불성실하더라도 성과를 내는 것을 더 평가하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사회에는 허위(虛僞)풍조가 만연하여 성실이라는 것을 외면하는 경향이 생겼다. 성실보다는 요령(要領)이라는 말이 말해주듯 성실은 오히려 우직(愚直)한 행동이요 성실보다는 공리성을 따져서 성과를 올리는 것을 높이 평가하게 되어 이러한 풍조는 사회에서 성실을 과소평가하고 나아가서는 허위를 조장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인류가 이와같이 나아가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릴 것 없다는 허위성이 늘어가게 되고 인간성은 타락의 일로를 가고 사회는 온통 허위의식에 젖고 말 것이니 이리되면 인간의 장래는 비관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그러한 인류의 허위의식과 허위생활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도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여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실치 못한 수단을 쓰는 것은 오히려 성실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허위를 추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인류가 만연한 온갖 허위를 추방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장래는 그저 암담할 뿐이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불성실이나 허위로 이루어진 일은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성의 본성이 선량하기 때문에 그 본성에 맞지 않는 불성실이나 허위는 어느 때이고 반드시 노출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류도 마비된 인간의 본성인 양심을 다시 찾아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태도로 나아가야만 타락해가는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천도에의 외경

정성은 하늘의 길이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것은 정성은 하늘과 인간, 신명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다. 「대학」에서 정성은 그것 자체가 천도요 그 정성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이 인도라고 했다.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곧 천도에 합치되고자 하는 노

력이다. 그런데 요즘 과학적 물질문명이 발달하여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육체외에 영혼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끊겨서도 영혼의 세계와 신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만 열중하지만 이는 우주와 지구와 인간과 만물에 정신이 있고 신명이 있고 그 신명중에도 우주와 인생과 사회를 주재하는 최고신인 하느님(상제)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종교에서 그 하느님을 밖에서 찾고저하여 하느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으나 하느님은 우리 인간성의 깊은 곳의 양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하늘을 무시하고 하늘을 가볍게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늘과 사람, 신명과 사람은 신인조화(神人調和)의 원리에 의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내재해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밖에서 하느님을 찾으면 허공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 신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양심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으므로 그 양심을 통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 신이 마음 깊은 곳과 천지 우주의 넓은 곳에 꼭차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을 무시하면 반드시 신의 견책을 당하게 될 것이다. 천심(天心)은 곧 민심(民心)이다. 하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마음 속에 있다.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 노자에 하늘의 그물이 대단히 넓어서 영성하지만 놓치는 일은 없다.(天網恢恢 疎而不漏)는 말이 있는데 하늘의 그물은 아무리 넓고 영성해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인데 이는 이 세상에 인과(因果)의 법칙이 엄연하여 성실한 사람과 성실치 못한 사람을 어김없이 가려낸다는 것이다. 그것은 밖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착한 본성인 양심의 발로가 늘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이 가능하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정신적인 존재를 소홀히 하고 우주의 법칙인 하늘의 도를 무시하면 그 보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의 마음에서 온다. 정성은 하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다. 늘 하늘의 도를 생각하면 저절로 정성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요즘 하늘이다 천도다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거나 심지어 미신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느님은 엄연히 존재한

다. 그 존재의 근거를 밖에서 찾기 때문에 잘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본거가 있다. 그 하나님을 외경하는데서 인간의 문명은 시작되었다.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내재하시겠지만 동물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인간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천도가 있고 양심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의 물질문명에서의 방랑을 버리고 정신문명을 다시 찾아 천도를 외경하는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천도를 외경하는 것이 곧 정성이다.

